

치유숲·禪체험...해남군 힐링산업 중점 육성

해남군이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힐링(Healing=치유) 시티 해남건설'에 발 벗고 나선다.

해남군은 '치유'를 키워드로 삼아 앞으로 4년간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개발·생산 ▲친수성 힐링 스테이션 구축 ▲두륜산(禿) 체험센터 건립 ▲지역별 치유 음식 개발 특화단지 조성 ▲땅끝 해남 치유숲 조성 등 '힐링산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월 실천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치유 기능성 농·수산물 생산' 사업의 경우 성인질환에 효과가 있는 미곡과 곡물류를 생산하는 것과 함께 건강식 샐러드용 채소를 선정해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흑미와 쥐눈이콩·귀리와 같은 곡물류와 특용작물(기능성 버섯·하수오·지황), 채소류(콜라비·브로콜리·

30ha 규모 '에코 힐링단지'

권역별 로컬푸드 특화단지

민선 6기 중점사업 추진

결구상추·아티초크) 등을 집중적으로 생산한다.

또한 '친수성 힐링 스테이션 구축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신규사업인 로컬푸드 분위기 조성사업과 병행해 제철 치유음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을 선두로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와 체험을 연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두륜산 산 체험센터 건립'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해 템플스테이 대표 명소인 대흥사와 지역 특산물

을 연계하는 종합 심신 힐링센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불교 명상과 녹차, 사찰음식, 난대림 트레킹 등의 해남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지역별 치유음식 개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대흥사권과 땅끝권·해남읍권 등 해남 3대 관광지 권역에 대한 특화음식 개발로 음식관광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준비단계인 올해는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조성단계(2015~2017년)를 거쳐 2018년에 특화단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흥사권'은 약초와 불교음식을 활용한 치유음식을 개발하고, '땅끝권'은 전복과 해초류, 어류를 활용한 해산물 디톡스(Detox=해독)음식 개발, '해남읍권'은 담·오리·한우·친환경 야채 등을 이용해 보양음식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땅끝 해남 치유숲' 조성사업

은 숲을 방문함으로써 생리적·심리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치유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추진된다. 계획면 기하산을 중심으로 30ha 규모의 '에코 힐링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산림치유단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다.

치유센터와 유아 숲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기본 골자로 삼아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유아들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놀이와 체험을 통해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등 전인적 성장효과도 기대된다.

박철환 군수는 "치유와 힐링을 중심으로 지역 농·어업과 문화관광 산업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진도 군내~서망 국도 18호선 개량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전격 국비 지원

세월호 침체 경제 활성화

팽목항 정비도 전격 반영

정부가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로 5개월이 넘게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예산을 대거 반영했다.

22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홍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도 18호선 진도 군내~포산~서망간(20.3km) 시설개량 사업'이 통과됐다.

특히 정 총리는 특별 재난지역인 진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경제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대상에서 국도 18호선 개설 사업을 제외해 전격적으로 국비를 반영했다.

총 사업비는 900억원으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며, 시설비는 820억원, 보상은 8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우선 실시설계비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설계에 착수하고, 2016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해 2017년 2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군은 팽목항 접근로가 완공되면 전남 서·남부권과 진도간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팽목항·서망항의 물동량 수송이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여러 차례 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탓에 사업타당성 부족 등으로 수차례 좌절됐다.

그러나 정 총리가 '세월호' 사고이후 관광객과 관광 수입이 크게 줄며 심각한 경기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진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상황을 고려해 국도교통부 등에 직접 지사를 내림으로써 진도군 숙원사업이 구체화됐다.

이 밖에 팽목항 2단계 건설 추진을 위한 진입 도로 환경개선사업 29억원과 진도 어민에 대한 어선 소요 경비 및 생계 안정 지원 예산 신속 지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팽목항을 영원히 기억되는 곳으로 만들고 추모·안전체험 및 국가 개조의 장(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기념관 설계비 2억원과 추모공원·추모탑 설계비 5억원도 반영됐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이후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등을 총 11차례 방문해 실종자 가족 위로와 수색 독려, 진도 주민들의 헌신적인 협조와 지원에 감사를 표시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우리밀 일번지 된다

내년 재배규모 전국 최대

내년도에 해남군 우리 밀 일번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해남군은 최근 읍·면사무소를 통해 의향면적을 조사한 결과 2015년산 우리 밀이 전국 최대규모인 1300ha에서 재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산 1091ha보다 20%가량이 늘어난 수치로, 전국 최대면적이다. 2013년산 927ha보다는 40%가 늘었다.

이처럼 해남지역 우리 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량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수매가격 또한 2014년산 일반 밀이 40kg 1가마에 4만 2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00원이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때문에 다. 친환경 우리 밀은 4만5000~4만8000원으로 해남에서는 전체 밀 면적의 30%인 330ha가 재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직불금에 보리와 맥류가 2모작 지급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밀 재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군은 우리 밀 재배의 적극적인 장려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보리 수매제도 폐지에 대비해 대체작목으로 꾸준히 계약재배를 추진해 오며 농가를 독려했다.

또한 각종 자체 지원과 수매수수료 등 총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3개소에 2000t 규모의 우리 밀 건조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등 밀 재배를 적극 추진해 온 것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진도를 찾은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진도읍 문화체험장에서 진도 아리랑과 진도만가를 배우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4~7시에 운영되고 있다.

진도 아리랑 한가락 배워볼까 진도 문화 체험장 관광객 호응

"진도 아리랑을 배우고 강강술래도 체험하세요."

매주 목·금·토요일 오후 4시와 7시에 진도읍 문화체험장에서 열리는 '진도 문화 체험장'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진도군은 진도명품관 2층을 위탁 운영단체인 진도 민속문화예술단에 맡겨

지난 2월부터 '진도 문화 체험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험장에서는 강강술래를 비롯해 진도아리랑, 북춤, 진도만가(晩歌), 진도 옛타령, 남도민요, 옛노래 등 진도군의 민속과 문화·예술 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진도 민속문화예술단원들이 관객과

어우러지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연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공연내내 무형문화재 보유·이수자들이 관객들에게 '진도 아리랑'을 한 구절씩 알려준 후 소리를 함께 불러보고 강강술래에 직접 참여하면서 신명나는 시간을 체험할 수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해남 문예회관 연극 '아버지' 무대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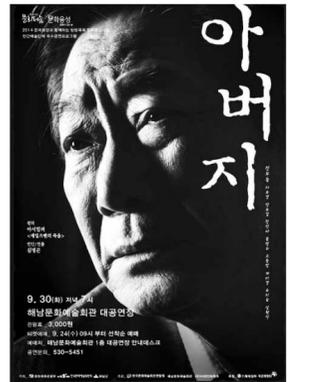
30일 저녁 7시 대공연장

미국 극작가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을 재창작한 연극 '아버지'가 오는 30일 저녁 7시 해남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후원으로 시행하는 2014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 공연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 아티넌트웍스가 제작한 연극 '아버지'는 한평생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흘러간 세월만큼 변해버린 세상인심과 가정에서조차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우리 시대 아버지의 심정을 그린 작품이다.

공연 입장권은 24일 오전 9시부터 해남 문화예술회관 1층 안내데스크에서 1인2매까지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관람료는 3000원이며 13세 이상 입장가



능하다. 군은 취약계층에는 초청권을 발행해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동문대로[두암동]랜드마크 주선메디컬센터 임대
말바우시장 핵심상권

· 위치 : 두암동 말바우 시장 은병원 옆
· 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 준공 : 2014년 12월 초

상당
진 공인중개사 010-6205-6020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일조공인중개사
"간절함으로 승부하라"

병원 2층 3층 병의원 임대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면적 306.20㎡

◆수원동 1층 상가 매매 대방노블랜드 2차 인근 매매가 3억
◆금호동 1층 임대(보증금 1억 월400만) 시,비 있음
◆양산동 원룸 동남2차 뒷편 엘리베이터,폭음선 편백 3월준공 매매가 7억3천
◆각화동 원룸 14개 주인세대 매매가 6억9천

나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 근생 D9블럭 3층건물 매매 7억8천 (1층상가, 2,3층 주택)
◆나주혁신도시 근생용지 219평 매매 116,000만원
◆NH 공공임대8블럭 단지내 상가 매매 16평 2층 23,000
◆나주혁신도시 D-9 이주주택지 88평 매매가
◆나주 부곡동 토지 매매 세월지 매매 270,000만원

나주 혁신도시 리버빌딩,금화빌딩
스마트 플라자 상가 분양
혁신도시내 단독주택,근생용지 다량 확보
나주 혁신도시 내 우정사업본부 후문 진입로
☎ 010-4226-0504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송정동(백제약국부근) 2층 7.5억 (보5500만 월32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두동 투자유망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상가 신축 용지
- 창고/공장 용지
- 전원주택용지
- 귀촌, 귀농용 전/답, 과수원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 새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